中四日順天悪民聯合會司分と去十四日順天悪民聯合會司分と去十四日順天農民聯合會部分為 大計中日司 大計中日司 大計中日司 ○決議 1、勞働聯合會館修繕中土堂語 1、勞働聯合會館修繕中土堂語 1、自由勞働組合組織当促成名

徐阿安長

白盧吉

記者 图 例 會 3 決議 中前十時 一、場所 鐵原 青年會館 一、場加資格 關東 5 位置 三至 少年 團體 3 代表者 로 5 で 但参加金五十級 2 原 上 6 元 全 加申請書 三 随意 三 5 で

者

The Koren Baily News.

Scoul, Korca, Friday, Nov. 20th, 1925.

Of which the coming life is made, And fill our Future's atmosphere With sunshine or with shade. The tissue of the Life to be

We weave with colors all our own, And in the field of Destiny We reap as we have sown.

Sir, ___ I am only a young student of literature. But I am very sad to see the youths in this land so inactive and spiritless. This is why I write this essay on chrysanthemums in spile of my poor knowledge. I hope to have the honour of having this frivolous essay read by all Korean youths through your esteemed piper.

CHRYSANTHEMUMS.

Lilies are clean, roses are beautiful, dandelions are lovely, but is any of them so noble and holy as chrysanthemums?

Not only noble and holy, but also brave and bold they are. Look! It is autumn now. All the glories of the year are fading —the pale flowers are dying, the withered leaves are fluttering from the boughs like the defeated soldiers; but the admirable chrysanthemums are at their best. Yes, they are the only resisters against the tyranny of autumn. they are the last sustainer of the pride which was once so bright. They remind me of the ancient patriots who died bigeting against the invader that was so cruel and powerful. But the swift harbinger of winter, of

destruction of beauty, of silence, of darkness and of death is bound to come. O brave but powerless chrysanthemums, the day when you are also to perish is also at hand! Then courage! Have new hope!

far behind? **美一类**

We shape ourselves the joy or fear

To the Editor

Yu Chin-o.

Remember if winter comes, can spring be

関入十級外科(医学) 日本村 (会社) 日本村 (会社)

● 畜産機範部落品評會 金浦郡 ・ 会産同業組合主催豆本月十七日 ・ 会産同業組合主催豆本月十七日 ・ 会産同業組合主催豆本月十七日 ・ 会産同業組合主催豆本月十七日 ・ 会浦郡

□ (風倉) 孟山에 도山終住民言 (風倉) 孟山에 도山終住民言 (風倉) 孟山에 도山終住民言 (四世語) 김 등의 오 등 부리 (別) 三 資民 (四世語) 김 등의 오 등 부리 (別) 三 資民 (四世語) 기 등 (悠 査 大) 中 (四世語) 1 등의 (2) 1 등의 (

小麥 ○外麥의桑洛斗朝日 一十八圓五六十銭外ス의保合 十八圓五六十銭外ス의保合 中八圓五六十銭外ス의保合 ・11出廻小潮次增加 20里早已到注文도旺盛計の到保合 の里早已到注文도旺盛計の軟物 の里早已到注文도旺盛計の軟物 の里早已到注文도旺盛計の軟物

事項金次額が代すら 網合 総合

報報 日日 報報 三 社社年等 實 hun.

所日所日

라는 생도들의

학는 안 서 교 것 코 마

이 네고에은소

E

마바도

인보보통학교후도남정관시 모등에게 소년단에들게스 모에 다니지말라하얏다는 일항에 보도한바와깃기나는 소식이를 이 강정상에소년 기는 긴급집행위원회를 열

本町 署司法室 典舗化む

으장사게을이르도이시 전문자원 오후비시장에 시내본 인상(本町署) 사법당사실 에는 임식(本町署) 사법당사실 에는 임실이 있었다면서 가려당한 수십여명 이 내전 반가운마음을 이 가려 있었다는데 그가리 만흔 물건 기가 있었다는데 그가리 만흔 물건 기가운마음을 이 기지 못한 물이 있었다는데 그가리 만흔 물건

수일전에보지에

大法科)可对对自己出口可以

汽船中驅艦平衝突 38

間。

마 도수를 떠하게되야 나중 대 도수를 떠하게되야 나중 대연서(觀點)가오고가고하는 당에 두사람이 명임하다되었다 사람의줄을 명명됐다 말였는 그들이 그리케지나기를삼년 가이나 하얏스나

친에게 달리어내구로 갓다더라 며 정순이는 화일업시자긔의

おの丘二天の分

안산을

는 남물이게 연모(數

かを当路ご开軍

대포하다 그믐을수색한 인원』이라고 쓰암호 (暗號) 서류 가나라남으로 또다하네』 『고 첫 다시라 이라고 쓰암호 (暗號) 서류 자사라이로 변장이를 하여가지고 전기중도의 집에가서 『모히』 전기중도의 집에 가서 『모하』 전기중도의 집에 가서 『모하』 전기중도의 집에 가게 를하여오는

専賣局員自稱하

工

騙財、

不守异州到宣子被

본지폐원관

관 두개에 이원 이름으로십만

한행민속에는 증국지폐와 일본 입원자미지폐가 가득한테 실물 파다름이 별도엄다 되라 (신)이면보)

などか(大阪南區大江神社)ないには日子の分

間平かな の中に回なる

하였더

오백원을주고 사기로 약속한추 지난달일아측의 그대급 오반원 자즈라기가 물건을 자즈려고

이 가 나는 한 보고 가 수 이 한 한 등 하는 이 보고 가 나는 이 한 한 등 하는 이 한 한 수 있는 이 한 한 등 하는 이 한 한 수 있는 이 한 한 등 하는 이 한 한 수 있는 이 한 한 수 있는 이 한 한 수 있는 이 한 수 있는 이 한 한 수 있는 에가서자긔는 원매국원(專賣 員)5건데자가유민초(自家用煙 그집하메어달린당배

발급기심원을 물리겠다고 개명하고 심리한질과 복단검사하여 막걸리틱잔과 담한다 로부터 정명류개월의 구병이 있는하기로 하는 무슨이 심어의 한 기로 하기로 하는 무슨이 심어의 기로 하기로 하는 무슨이 심어의 기로 하는 무슨이 심어의 기로 하는 무슨이 심어의 기로 하는 무슨이 되었다. 日本學生禁酒運動 각방면에 대활동을 대

甥侄。宣歐打致死

호학생한원이 발각되여시고가리만 이라하며 압흥모도 취묘를받지 면보고의 몸차림을 보던지면요 가리부정한 행동으로 취묘를받다고만 이라더라 이라더라 이라더라 의로모다 너지교제비에 쓴모양

무사히살게하여주십소서

역대나 장안에 있는 또 사방에 군학소리를 내 자방에 군학소리를

을 못먹으면 대관식도하기진에 이나라 국상이날디징이오트하면 다나 자대좌는말말아스며『참대의 그러게 패괄하실것은 의심업도 기사가 오늘커를 기를도 이시자 우리가 오늘커를 어~~~~] 『그리는 동아 나는조

그리고 성을정거장의 『플랫폼』 지 사람들이 여기커리 상대 중단 로왓다 갔다 하며 오징인이 술링 로왓다 가다 하며 오징인이 술링 어락을 노아각치로 전달하였는 내 내가조반들먹고 이런스러하

(하강면보)

疑問

의

內

青年男女?

何故足母品馬平生智力品

深夜에逃走 고나나 우리는 발생정거장에도 의무 도현병이는 발생정거장에도 의위조케정거장의 등 단지하시지 다하야 그런거등이는 잠이 깨뜨는지 다하야 그런거등이는 잠이 깨뜨는지 무역장과 사무원이 모다벌벌ভ 며 대령하게되었다 무원이 모다벌벌ভ 무대 대령하게되었다 무원이 모다벌벌ভ 무대 대령하게되었다 무원이 모다벌벌ভ

◎色白되는『하루나

罗二昌과今心州化學的治療

『파수병들이 우리를차귀나시지

『맥이 조금 속히뛰는군화일으로 아모리 검이업는 사람이지마는 이런유도를 하는데에야 마음이 조릿조릿 하지아들수가업소화 や田三言当治が中色白州とおけ困難がない髪毛フ亦茶色の三号リウ 則人種的髪態が日の外國薬の現実洋人のガラ甚が筋臓が日不適當が利引

◎日本新科學の精華

의보급되는 모양이다◀그리나 정복 용양군 나는 여러가지교 일귀의한 수단으로 초사람을 일귀의한 수단으로 초사람을 나는데 그교의송류를 삼층교(川豊数)、월보려고(普 사장)、월종각교(總角数) 월 보려고(普 사장) 왕종각교(總角数) 월신 ▲ 경성에 서반기독교 어서되니 항송교대 장신회 등 전황이로보면의 한번 가도가 정향이 다니가 가 되었다 면 우리에서 라이라도 서투르게구 이를 다ー드리시요 성다실수만하 등 다ー드리시요 성다실수만하 다 우리에서 라이목숨은 한푼의 하이 니술 한한

『하루나ー ◎全國聯大藥店에 □價|重症用 五圓 七圓 難症用二圓

三圓无圓

다한시간 일속이

又に爲替、二錢切手代用書留郵便の三注文計分2,直接御注文の抵券口座東京一七二〇一番の拂込計外已入 有함

の『ハルナー療法治所計可以書所以以上中人の『ハルナー療法治所計可以書所以以上中人の『ハルナー療法治所計可以書所以以上中人の「共和計師人」「大田・ナー療法治所計可以書所以以上中人の「大田・ナー・療法」

니 드 그 다 림 저

食機が月上一当土制衣薬に食市京様属繁地一の四 言語は定

